

2024
고2 문학
지학사

2024 고2 문학 지학사 | 2(2)(1) 즐거운 편지 내신형 기출 문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직전 보강 유형

「즐거운 편지」의 시어 및 시구의 의미나 작품에 대한 감상의 적절성을 묻는 등, 작품의 내용과 의미에 대해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주로 기호를 활용해 시어 및 시구의 의미에 대해 묻거나,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처럼 해당 작품에 대한 감상의 적절성을 묻는 형식으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해당 작품의 시어 및 시구의 의미를 중심으로 작품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다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

내 그대를 생각함은 항상 그대가 앉아 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에 ㉢오랫동안 전해 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보리라.

2

진실로 진실로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나의 사랑을 한없이 잇닿은 그 기다림으로 바꾸어 버린 데 있었다. 밤이 들면서 골짜기엔 눈이 퍼붓기 시작했다. ㉣내 사랑도 어디쯤에선 반드시 그칠 것을 믿는다. 다만 그때 내 기다림의 자세를 생각하는 것뿐이다. ㉤그 동안에 눈이 그치고 꽃이 피어나고 낙엽이 떨어지고 또 눈이 퍼붓고 할 것을 믿는다.

- 황동규, 「즐거운 편지」

1.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상대에게 바라는 것 없는 지고지순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
- ② 영원한 자연에 대비되는 사랑의 유한성에 대해 보여 주고 있다.
- ③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마음과 진실한 사랑의 자세를 간절하게 표현하고 있다.

- ④ 행을 구분하지 않고 산문의 형식으로 솔직한 내면을 고백하듯이 이야기하고 있다.
- ⑤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일상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독자의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

2. 윗글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이 사실은 지극히 평범한 현상인 것처럼 시적 화자는 별 관심 없이 대상을 생각한다.
- ② 화자는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에서 상대의 괴로움은 자신에게 무관심했던 짓값이라고 여기고 있다.
- ③ 시적 화자는 대상을 기다리는 오랜 시간 동안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것 같은 고통과 시련의 상황을 보냈다고 생각한다.
- ④ 또 눈이 퍼붓고 할 것을 믿는다는 것은 영속적인 자연의 순환과도 같이 자신의 사랑도 지속될 것임을 강조한 표현이다.
- ⑤ 나의 사랑을 한없이 잇닿은 기다림으로 바꾸어 버렸다는 것은 결국 대상과의 만남 자체는 기대하지 않고 포기했다는 의미이다.

3.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그대를 사랑하는 것이 일상적이고 하찮은 일임을 말하고 있다.
- ② ㉡: 임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방황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 ③ ㉢: 임에 대한 화자의 사랑이 오랜 시간 변하지 않은 것임을 말하고 있다.
- ④ ㉣: 눈이 언젠가는 그치듯이 화자 자신의 사랑도 언젠가는 끝날 것임을 말하고 있다.
- ⑤ ㉤: 변하지 않는 자연 현상처럼 화자 자신의 사랑도 변하지 않을 것임을 말하고 있다.

4. <보기>는 윗글에 대한 수업 내용이다. 이를 참고할 때, 윗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윗글의 화자는 시적 대상인 ‘그대’를 생각하는 것이 소중한 일임을 강조하기 위해 ‘사소함’이라는 반어적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화자의 감정을 시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소함’뿐 아니라 윗글에는 반어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는 사랑의 감정이 다르듯이,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 ① 수련: 윗글의 화자는 ‘골짜기에 퍼붓는 눈’이 언젠가는 그치듯 ‘내 사랑도 어디쯤에선 반드시 그칠 것을 믿는다.’고 말해. 하지만 끊임없이 반복되는 계절의 순환을 이어서 제시함으로써 계절의 순환이 반복되듯 자신의 사랑이 영원할 것임을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해.
- ② 설아: 맞아, 윗글의 화자는 ‘다만 그때 내 기다림의 자세를 생각하는 것뿐이다.’라고 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언젠가는 맞닥뜨릴 이별의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순간의 격정적인 사랑의 감정을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기다림의 감정으로 바꾸고 있는 거야. 기다림으로 승화된 사랑은 더 애절하고 성숙한 것이지.
- ③ 로나: 난 생각이 좀 달라. 윗글의 화자는 인간의 사랑은 끝날 수도 있고 새로운 사랑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럼에도 기다림으로 승화된 사랑은 자연의 섭리처럼 영원할 것임을 드러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
- ④ 애교: 윗글의 제목 ‘즐거운 편지’는 어떻게 생각해? 나는 윗글의 화자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사랑의 고통을 ‘한없이 잇달은 그 기다림’으로 승화시켜 기약 없는 기다림의 고통마저도 즐거운 마음으로 수용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그래서 ‘즐거운 편지’는 화자의 그 즐거운 마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해.
- ⑤ 윤희: 난 생각이 달라. 화자는 자신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 힘이 되어 주었던 ‘그대’를 잊지 못하고 사랑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잖아. 그러한 사랑이 ‘그대’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는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쓴 편지이기에 즐겁지 않았을 거야. 이를 반어적으로 ‘즐거운 편지’라고 표현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5. <보기>는 윗글의 화자가 ‘그대’에게 보낸 편지이다. 윗글의 내용을 참고할 때,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나는 그대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대를 우리 주변에서 항상 일어나는 자연의 현상처럼 오랫동안 사랑해 왔습니다. ㉡그대가 방황하거나 힘들 때에도 나는 변함없이 그대를 사랑할 것입니다. 나의 사랑이 언제나 그대 곁에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내 사랑이 그대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나는 그대를 사랑하며 기다릴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에는 고통도, 괴로움도 없습니다. 오직 행복만이 가득할 뿐이죠. ㉤끊임없이 반복되는 계절의 순환처럼 그대를 향한 나의 사랑은 지속될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오늘도 나는 그대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그대에게 편지를 띄웁니다. 나의 영원한 사랑을 그대에게 보냅니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신유형

「즐거운 편지」의 시어 및 시구에 대해 묻거나 감상의 적절성을 묻는 문제, 표현상의 특징과 그 효과에 대해 묻는 문제, 학습활동에 제시된 지문인 「첫사랑」의 시어 및 시구의 의미 등 작품의 내용과 그 의미에 대해 묻거나 표현상의 특징에 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두 작품의 시어 및 시구를 중심으로 작품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작품의 표현상 특징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6~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

내 그대를 생각함은 항상 그대가 앉아 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에 오랫동안 전해 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보리라.

2

진실로 진실로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내나의 사랑을 한없이 잇닿은 그 기다림으로 바꾸어버린 데 있었다. 밤이 들면서 골짜기엔 눈이 퍼붓기 시작했다. 내 사랑도 어디쯤에선 반드시 그칠 것을 믿는다. 다만 그때 내 기다림의 자세를 생각하는 것 뿐이다. 그 동안에 눈이 그치고 꽃이 피어나고 낙엽이 떨어지고 또 눈이 퍼붓고 할 것을 믿는다.

- 황동규, 「즐거운 편지」

6.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 ㄱ. 시어 반복을 통해 화자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한다.
- ㄴ. 자연의 아름다움을 예찬하여 삶의 무상감을 이겨내고 있다.
- ㄷ. 사랑의 감정을 자연 현상에 빗대어 산문의 형식으로 표현한다.
- ㄹ. 사물에 생명력을 부여하여 의지를 지닌 존재로 나타내고 있다.
- ㅁ. 미래 상황에 대한 가정을 통해 삶의 허무

감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ㄷ, ㄹ
- ④ ㄴ, ㄹ, ㅁ
- ⑤ ㄹ, ㅁ

7.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의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갑: 일반적으로 서정 갈래는 운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작품은 산문 형식으로 되어 있잖아. 그런데도 이 작품을 서정 갈래로 분류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을: 응, 그건 () 때문이라고 생각해.

- ① 화자의 정서를 자연 현상에 비유하여 표현하거나 반어적 기법을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
- ② 화자의 내면 심리를 짧은 대화 형식으로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
- ③ 대상에게 편지를 쓰면서 깨닫게 된 생각이나 교훈을 시인 자신이 감각적인 정서로 형상화하고 있는 것
- ④ 시인 자신이 일상생활에서 겪은 진솔한 경험을 독자에게 주관적으로 전달하는 형식으로 시를 구상한 것
- ⑤ ‘그대, 진실로, 기다림’ 등과 같은 단어나 ‘~ 것을 믿는다’의 문장구조 등을 반복함으로써 운율을 형성하고 있는 것

8. ㉞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랑은 정의나 투쟁에 비해서는 아주 보잘것없는 행위임을 의미한다.
- ② 자신의 사랑이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오랫동안 변함없이 지속될 것임을 의미한다.
- ③ 결국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사랑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④ 진실로 사랑은 물질적인 것을 배제하고 작고 소소한 행복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⑤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 없이 사소한 일임을 의미한다.

9. 윗글에 나타난 화자의 주된 정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그리움
- ② 즐거움
- ③ 괴로움
- ④ 서러움
- ⑤ 안타까움

【10~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
내 그대를 생각함은 항상 그대가 앉아 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에 오랫동안 전해 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보리라.

2
진실로 진실로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내나의 사랑을 한없이 잇닿은 그 기다림으로 바꾸어 버린 데 있었다. 밤이 들면서 골짜기엔 눈이 퍼붓기 시작했다. 내 사랑도 어디쯤에선 반드시 그칠 것을 믿는다. 다만 그때 내 기다림의 자세를 생각하는 것뿐이다. 그 동안에 눈이 그치고 꽃이 피어나고 낙엽이 떨어지고 또 눈이 퍼붓고 할 것을 믿는다.

- 황동규, 「즐거운 편지」

10. 윗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화자가 자신의 사랑을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하다고 말한 이유는 타인의 희생적 사랑보다 부정적 요소를 덜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ㄴ. ‘밤이 들면서 골짜기’에 내리는 ‘눈’은 화자의 사랑이 기다림으로 승화되며 사라져 버린 고통과 순수한 마음의 결정체로 이해할 수 있어.

ㄷ. ‘눈’, ‘꽃’, ‘낙엽’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계절의 순환을 형상화하며 이를 통해 화자의 영원한 사랑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11. 윗글을 감상하고 나눈 학생들의 대화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영수: 화자는 자신의 사랑을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과 같이 반복되는 자연 현상에 비유하여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
- ② 철수: 화자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사소하지만 중요하고 변함없는 자연 현상처럼 ‘그대’를 오랫동안 사랑해 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지.
- ③ 명수: 화자가 자신의 사랑을 ‘한없이 잇닿은 그 기다림’으로 바꾸었다는 부분에서는 포용력을 지닌 성숙한 사랑의 모습을 볼 수 있어.
- ④ 경수: 그런데 이 사랑은 ‘그대’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아. ‘밤이 들면서 골짜기엔 눈이 퍼붓기 시작했다.’에서 ‘그대’를 기다리는 화자의 고통스러운 내면세계가 형상화되어 있거든.
- ⑤ 정수: ‘내 사랑도 어디쯤에선 반드시 그칠 것을 믿는다.’를 보면 결국 화자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겠다고 결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정답 및 해설

내신형 기출 문제

1. 정답 ②

윗글은 '내 사랑도 어디쯤에서 반드시 그칠 것을 믿는다.'에서 눈이 그치는 것처럼 자신의 사랑도 언젠가 끝이 날 것이지만, 변하지 않는 자연의 섭리처럼 '그대'를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을 뿐, 자연과의 대비를 통해 사랑의 유한성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 ① 윗글은 '그대'에게 바라는 것 없는 화자의 지고지순하고 영원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
- ③ 사랑하는 '그대'를 기다리는 진실한 사랑의 자세를 편지 형식으로 간절하게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다.
- ④ 행을 구분하지 않은 산문시로, 화자의 내면을 고백하듯 이야기하고 있는 작품이다.
- ⑤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자연 현상에 빗대어 사랑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작품이다.

2. 정답 ④

'그 동안에 눈이 그치고 꽃이 피어나고 낙엽이 떨어지고 또 눈이 퍼붓고 할 것을 믿는다.'를 통해 변하지 않는 자연의 섭리처럼 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도 변하지 않을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 ① 1연에서 사소하지만 중요하고 변함없는 자연 현상처럼 '그대'를 향한 사랑이 소중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 ② 화자는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 오랜 시간 변하지 않은 변함없는 사랑을 전하겠다고 말하고 있을 뿐, 상대의 괴로움이 자신에게 무관심했던 찻값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 ③ 기다림의 고통을 형상화하고 있는 구절은 '밤이 들면서 골짜기엔 눈이 퍼붓기 시작했다.'이며, 화자는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처럼 그대를 그리워하는 것이 소중한 일임을 반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나의 사랑을 한없이 잇닿은 그 기다림으로 바꾸

어 버린 데 있었다.'는 사랑을 기다림으로 승화했음을 의미할 뿐, 대상과의 만남 자체는 기대하지 않고 포기했다는 것이 아니다.

3. 정답 ①

- ㉠: 그대를 그리워하는 것이 소중한 일임을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 임의 정신적인 고통과 방향을 의미한다.
- ㉢: 오랜 시간 변하지 않은 임에 대한 사랑을 의미한다.
- ㉣: 눈이 언젠가는 그치듯 자신의 사랑도 끝날 것임을 의미하는 구절이다.
- ㉤: 변하지 않는 자연의 섭리처럼 그대를 향한 나의 사랑도 변하지 않을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4. 정답 ⑤

윗글에서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는 '그대'가 정신적인 고통과 방향을 겪을 때를 의미하므로, 자신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 힘이 되어 주었던 '그대'를 잊지 못하고 사랑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① 윗글의 화자는 사랑이 언젠가는 끝날 것임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으나, 변하지 않는 자연의 섭리처럼 기다림으로 승화된 자신의 사랑은 영원할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윗글은 2연에서 기다림으로 승화된 사랑이 자연의 섭리처럼 변하지 않을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윗글의 화자는 사랑은 언젠가 끝나겠지만, 기다림으로 승화된 사랑은 변하지 않는 자연의 섭리처럼 영원할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윗글의 제목을 반어로 보지 않았을 때는, 이루기 어려운 사랑마저 즐거운 마음으로 수용하고 있는 화자의 정서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 정답 ④

- ㉠: '밤이 들면서 골짜기엔 눈이 퍼붓기 시작했다.'에서 기다림의 고통을 형상화하고 있으며, 화자는 고통스럽더라도 변함없이 '그대'를 사랑할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 ① ㉡: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에서 사소하지만 중요하고 변함없는 자연 현상처럼 '그대'를 오랫동안 사랑해 왔음을 드러내고 있다.

② ㉞: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에 오랫동안 전해 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보리라.'를 통해 '그대'가 정신적인 고통과 방황 속에 있을 때도 변함없이 사랑할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③ ㉟: 화자는 자신의 사랑을 한없이 잇닿은 그리움으로 바꾸어 자신의 마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해도 영원히 '그대'를 사랑하고 기다릴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⑤ ㊱: '그 동안에 눈이 그치고 꽃이 피어나고 낙엽이 떨어지고 또 눈이 퍼붓고 할 것을 믿는다.'를 통해 변하지 않는 자연의 섭리처럼 기다림으로 승화된 자신의 사랑은 영원할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6. [정답] ②

ㄱ. '진실로 진실로'에서 시어의 반복을 통해 '그대'를 향한 화자의 간절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ㄴ. 윗글은 자연 현상에 빗대어 '그대'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의 감정을, 행을 구분하지 않는 산문의 형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ㄷ. 윗글은 사랑의 간절함과 불변성에 대해 고백하고 있는 작품이다.

ㄹ. 윗글은 사물에 생명력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ㅁ. 윗글은 미래 상황에 대한 가정으로 삶의 허무함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7. [정답] ⑤

윗글은 행을 구분하지 않는 산문시이지만 시어나 유사한 문장구조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① 자연 현상에 비유하여 변하지 않는 화자의 사랑을 표현하고, 반어적 기법을 사용하여 임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고 있으나 윗글이 운문인 것과는 관련이 없다.

② 윗글은 편지 형식으로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으며, 윗글이 운문인 것과는 관련이 없다.

③ 윗글은 교훈을 전달하고 있지 않다.

④ 학습활동에 제시된 시인의 인터뷰 내용을 참고하면, 해당 작품이 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창작된 것임을 알 수 있으나, 이는 윗글이 운문인 것과는 관련이 없다.

8. [정답] ②

㉞는 그대를 향한 사랑이 자연 현상처럼 오랜 시간 변하지 않았으며, 소중한 일임을 반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①, ③, ④, ⑤ ㉞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다.

9. [정답] ①

윗글은 '그대'를 향한 기다림으로 승화된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므로, 화자의 주된 정서는 그리움이다.

②, ③, ④, ⑤ 윗글에 나타난 화자의 주된 정서로 적절하지 않다.

10. [정답] ②

ㄴ. '그 동안에 눈이 그치고 꽃이 피어나고 낙엽이 떨어지고 또 눈이 퍼붓고 할 것을 믿는다.'를 통해 변하지 않는 자연의 섭리처럼 그대를 향한 화자의 사랑도 변하지 않을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ㄱ. 화자는 자신의 사랑을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하다고 말하며 '그대'를 향한 사랑이 소중한 것임을 반어법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 타인의 희생적 사랑보다 부정적 요소를 덜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ㄷ. '밤이 들면서 골짜기'에 내리는 '눈'은 기다림의 고통을 형상화한 것으로, 화자는 기다림의 고통마저 수용하며 그대를 기다리겠다고 말하고 있다.

11. [정답] ⑤

화자는 눈이 언젠가는 그치듯 자신의 사랑도 끝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이어서 자연의 순환을 언급하며 변하지 않는 자연의 섭리처럼 자신의 사랑도 변하지 않을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①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은 일상적으로 반복되기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이것보다 더 근원적이고 오래된 것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사소한 일'은 흔하고 매일같이 반복되지만, 반어적으로 무엇보다 영속적이고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② 화자는 자신의 사랑을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것은 사랑의 보잘것없음을 말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랑이 오랫동안 변함없이 지속될 것임을 말하고자 한 것이다.

③ '나의 사랑을 한없이 잇닿은 그 기다림으로 바뀌어 버린 데 있었다.'를 통해 사랑을 기다림으로 승화하여, 기다림의 고통마저 수용하는 성숙한 사랑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④ '밤이 들면서 골짜기엔 눈이 퍼붓기 시작했다.'는 기다림의 고통을 형상화한 구절로, 이를 통해 화자의 사랑이 '그대'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12. 정답 ④

'밤이 들면서 골짜기엔 눈이 퍼붓기 시작했다.'는 기다림의 고통을 형상화한 구절이지만, 윗글의 화자는 변하지 않는 자연의 섭리처럼 그대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다짐하고 있을 뿐, 사랑을 멈추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① 화자는 자신의 마음을 자연 현상에 빗대어 사소하지만 중요하고 변함없는 자연 현상처럼 '그대'를 오랫동안 사랑해 왔음을 드러내고 있다.

②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은 일상적으로 반복되기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이것보다 더 근원적이고 오래된 것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사소한 일'은 흔하고 매일같이 반복되지만 반어적으로 무엇보다 영속적이고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③ 화자는 눈이 언젠가는 그치듯이 사랑도 언젠가는 끝날 것임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다.

⑤ '그 동안에 눈이 그치고 꽃이 피어나고 낙엽이 떨어지고 또 눈이 퍼붓고 할 것을 믿는다.'를 통해 변하지 않는 자연의 섭리처럼 자신의 사랑도 변하지 않을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13. 정답 ①

윗글은 눈꽃을 피우기 위한 '눈'의 도전을 보여 주고 있으나, 여러 사람에게 도전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② '햇숨 같은 마음을 다 퍼부어'라는 표현을 통해 첫사랑의 순수함과 헌신적인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③ 첫사랑은 '바람 한 자락 불면 획 날아갈 사랑'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④ 첫사랑은 수많은 노력과 헌신적인 태도를 통해

이를 수 있으므로 '황홀'은 더 큰 기쁨을 준다.

⑤ '아름다운 상처'는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여 첫사랑의 아픔을 통해 이뤄낸 성숙한 사랑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14. 정답 ⑤

4연에서는 '아름다운 상처'라는 역설적 표현을 통해 첫사랑의 아픔을 통해 이뤄낸 사랑의 성숙이라는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① 겨울에서 봄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② 1연에서는 사랑을 이루려는 주체인 '눈'과 사랑을 이루고자 하는 대상인 '흔들리는 나뭇가지'가 제시되어 있다.

③ 2연에는 '싸그락', '난분분'과 같은 음성 상징어를 활용해 눈꽃(첫사랑)을 피우기 위한 '눈'의 노력을 형상화하고 있다.

④ 3연에서는 '햇숨 같은 마음을 다 퍼부어 준'에서 직유법을 활용하여 첫사랑을 이루기 위한 '눈'의 헌신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15. 정답 ⑤

'한 번 덴 자리'에 터지는 '아름다운 상처'는 봄꽃을 의미하며, 첫사랑의 아픔을 통해 이뤄낸 성숙한 사랑을 의미한다.

① 윗글은 '나뭇가지'에 눈꽃을 피우기 위한 '눈'의 사랑을 제재로 하고 있다.

② 2연에서 눈꽃을 피우기 위한 '눈'의 수많은 노력을 보여 주고 있다.

③ '바람 한 자락 불면 획 날아갈 사랑'을 통해 첫사랑의 순간적인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④ '햇숨 같은'에서 직유법을 활용하여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을 다 퍼부어 준 후에야 비로소 '황홀(눈꽃)'을 피워 낼 수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16. 정답 ②

윗글은 2연에서 음성 상징어를 활용해 눈꽃을 피우기 위한 '눈'의 도전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다.

① 윗글은 '눈'을 의인화하여 사랑의 결실을 위한 시련과 고난, 헌신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③ '싸그락', '난분분' 등 시어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